

한겨레 디지털 매체 소개서

2024



인터넷 한겨레

| 어뷰징 기사, 날치기 기사, 선정적 광고가 없는 청정구역 |

인터넷
한겨레
is

모바일과 글로벌을 키워드로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만듭니다.

모바일 SNS에 최적화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한겨레는 어뷰징 기사, 날치기 기사, 선정적 광고가 없는 온라인 청정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겨레의 광고효과와 주목도, 브랜드 호감도가 높은 이유입니다.

월 평균 PV 3천만

월 평균 UV 1천6백만

페이스북 31만

YouTube 63.3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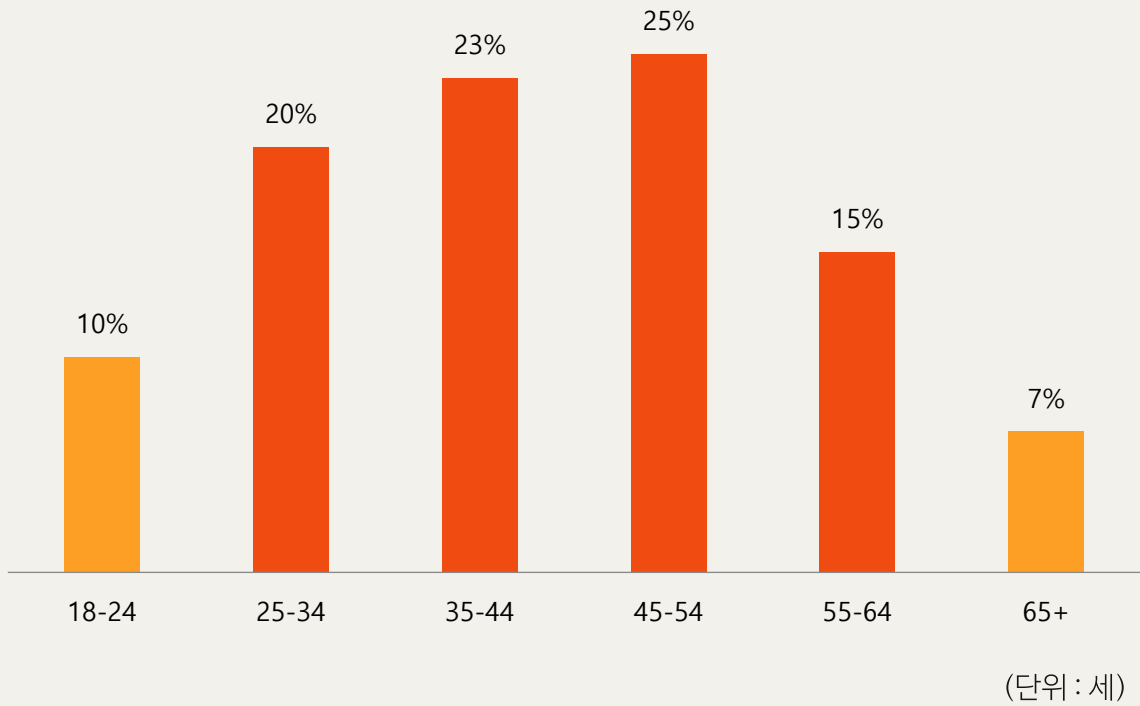
※ 2024년 현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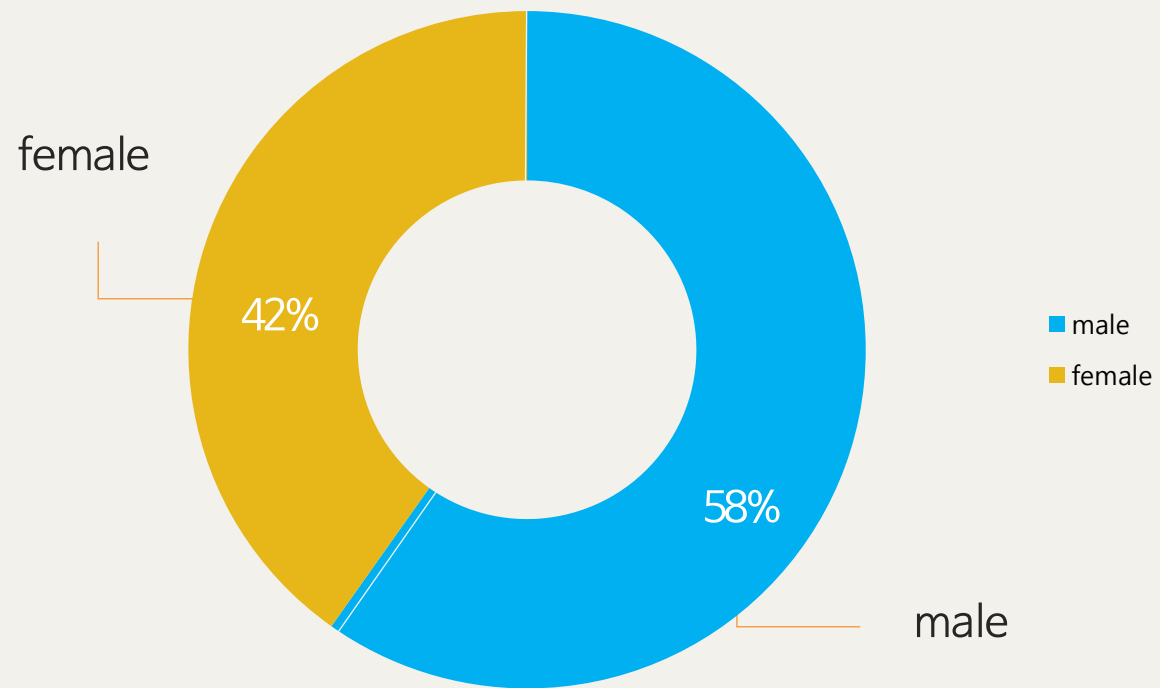
인터넷 한겨레 독자 통계

| 모든 세대의 사용자가 함께 읽는 언론 |

[연령]



[성별]




※ 구글 애널리틱스 기준

| 한겨레는 글로벌 독자를 위해 영문판 · 일문판 · 중문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문판]

[일문판]

[중문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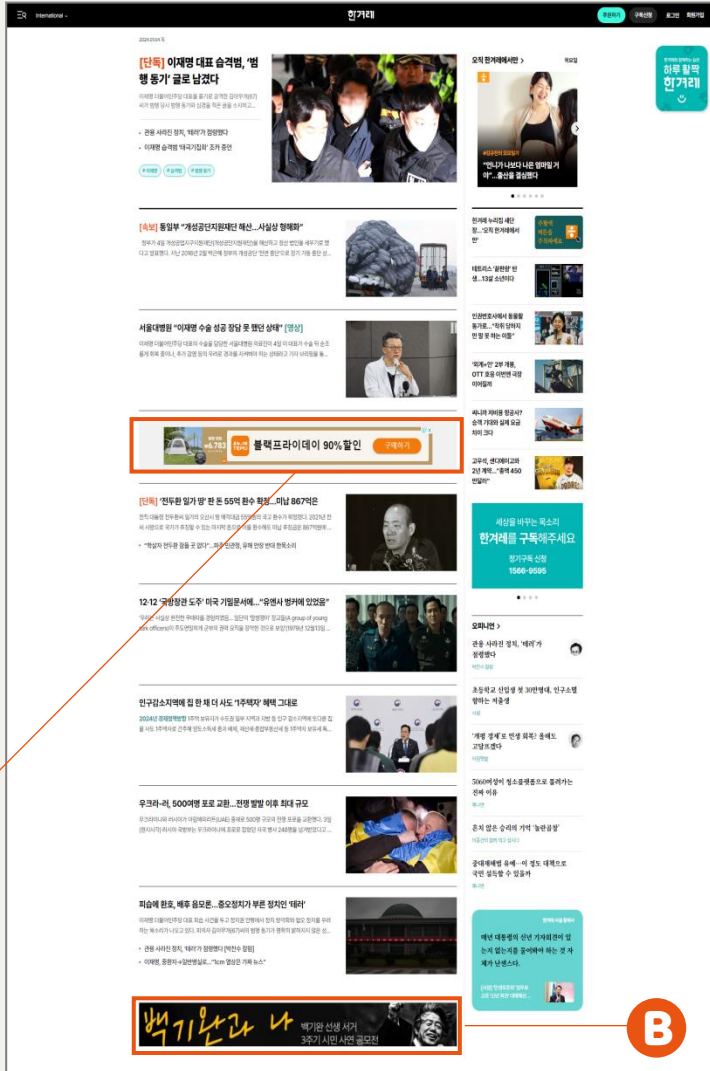
※ 각 페이지를 누르면 해당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한겨레 hani.co.kr

| 메인 페이지는 한겨레에 대한 호감도, 로열티가 높은 사용자의 방문이 높아 광고 주목도가 높습니다 |



| 구분 | 위치 | 규격 | CTR | CPM |
|----|----------|--------|-------|---------|
| A | 메인 중단 1 | 728x90 | 0.25% | 15,000원 |
| B | 메인 중하단 2 | 728x90 | 0.20% | 10,000원 |

| 기사 페이지는 외부 플랫폼이나 기사 검색을 통해 유입되어 다양한 사용자의 방문이 높습니다 |

C [배너] "배낭" "여행" "여행" "여행" 관련 이미지

D [사이드바] "일본 오사카 3일 자유여행" 광고

E [기사 본문 내] "Bang & Olufsen" 광고

F [기사 본문 내] "손가락 관절염 사라집니다" 광고

기사 제목: 인구감소지역에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 그대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기사 본문: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등 인구 감소지역에 위치한 집을 사도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재, 재산세·종부세·소득세 등 1주택자 보유세 혜택을 적용한다. 올해 인구·거주(IRA) 투자를 통한 가업의 투자 증가에 따라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하고, 풀 산본가 산본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 공제율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감세를 통해 투자·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재산세 등 1주택자 과세 특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집 있는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 두번째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과세(시가 12억원 이하) 비과세, 초과 주택은 기본세를 적용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도 1주택자 기준 세율(기본 공제율)을 적용한다. 대상 지역에 대해 기획재부는 "인구감소 지역의 약 88개다. 수도권도 일부 포함해 있고 지방 도시 권역도 포함해 있다. 어느 지역으로 대상을 조금 더 제한할 것인지 등은 좀 더 검토를 거쳐 뒤 법 개정안을 낼 때 확정·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집값에 박진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고 인구 감소지역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지방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엔 올해 한시적으로 개발 부담금 100%, 학교 용지 부담금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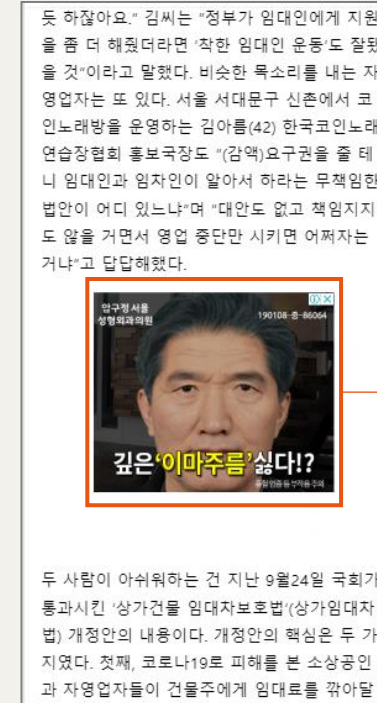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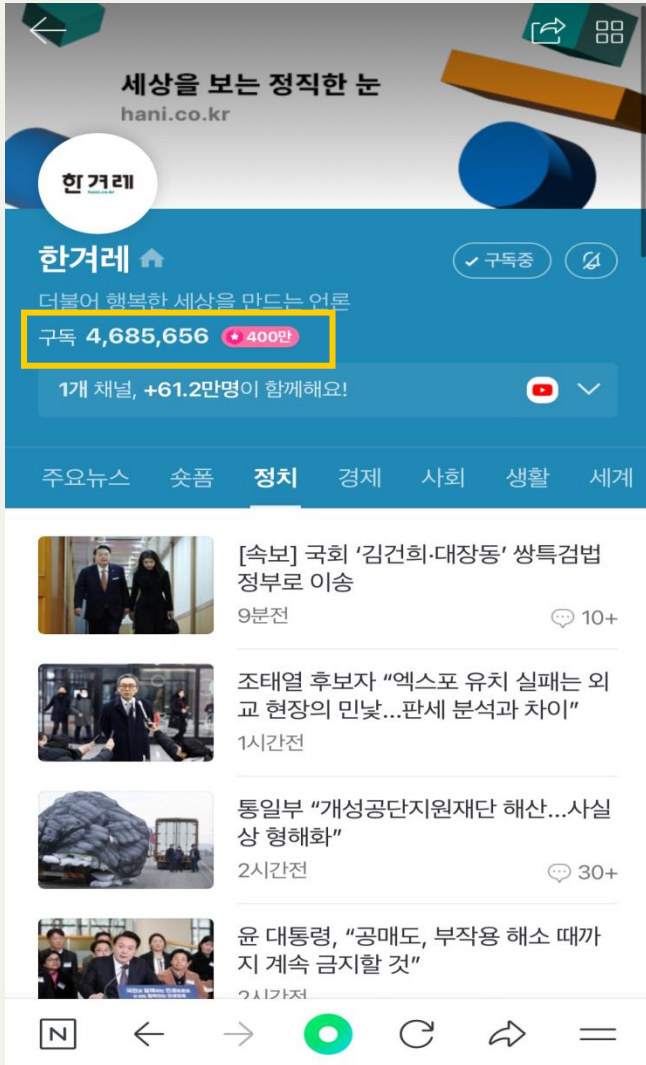
작업물 표시

손가락 관절염 사라집니다

광고: 손가락 관절염 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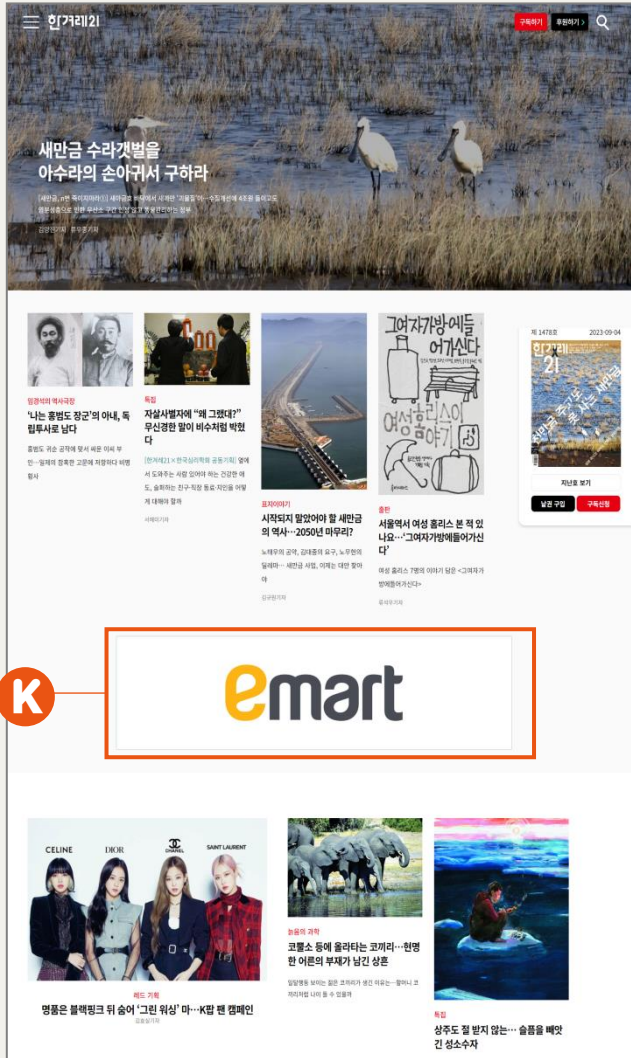
또 가업의 사할 투자 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제도에 이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일반 공제율 투자도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에 따라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일반 공제율 투자 증가분 공제율이 기존 25%에서 35%로 높아질 전망이다. 무역금융 355조원, 시설투자자금 52조원 등 총액만큼 공급도 확대한다.

| 구분 | 위치 | 규격 | CTR | CPM |
|----|---------------|---------|-------|---------|
| C | 기사 상단 | 970x250 | 0.21% | 10,000원 |
| D | 기사 좌측 여백(스크롤) | 300x600 | 0.50% | 7,000원 |
| E | 기사 우측 중단 | 300x250 | 0.44% | 5,000원 |
| F | 기사 본문 내 | 680x280 | 0.55% | 5,000원 |



| 구분 | 위치 | 규격 | CTR | CPM |
|----|-----------|---------|-------|---------|
| G | 메인 상단 띠 | 320x50 | 0.05% | 10,000원 |
| H | 메인 하단 플로팅 | 320x50 | 0.9% | 10,000원 |
| I | 기사 본문 내 | 336x280 | 1.2% | 10,000원 |

시대가 요구하는 어젠다를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시사 주간지의 리더



| 구분 | 위치 | 규격 | CTR | CPM |
|----|-------|---------|-------|---------|
| K | 메인 중앙 | 970x250 | 0.23% | 30,000원 |
| L | 기사 하단 | 580x400 | 0.15% | 10,000원 |





**네이티브
애드**

카드뉴스 : 서울시청 전자출입명부 QR 코드 만들기

| 한겨레가 제작 또는 업로드하고 인터넷 한겨레 메인 & 기사 페이지에 노출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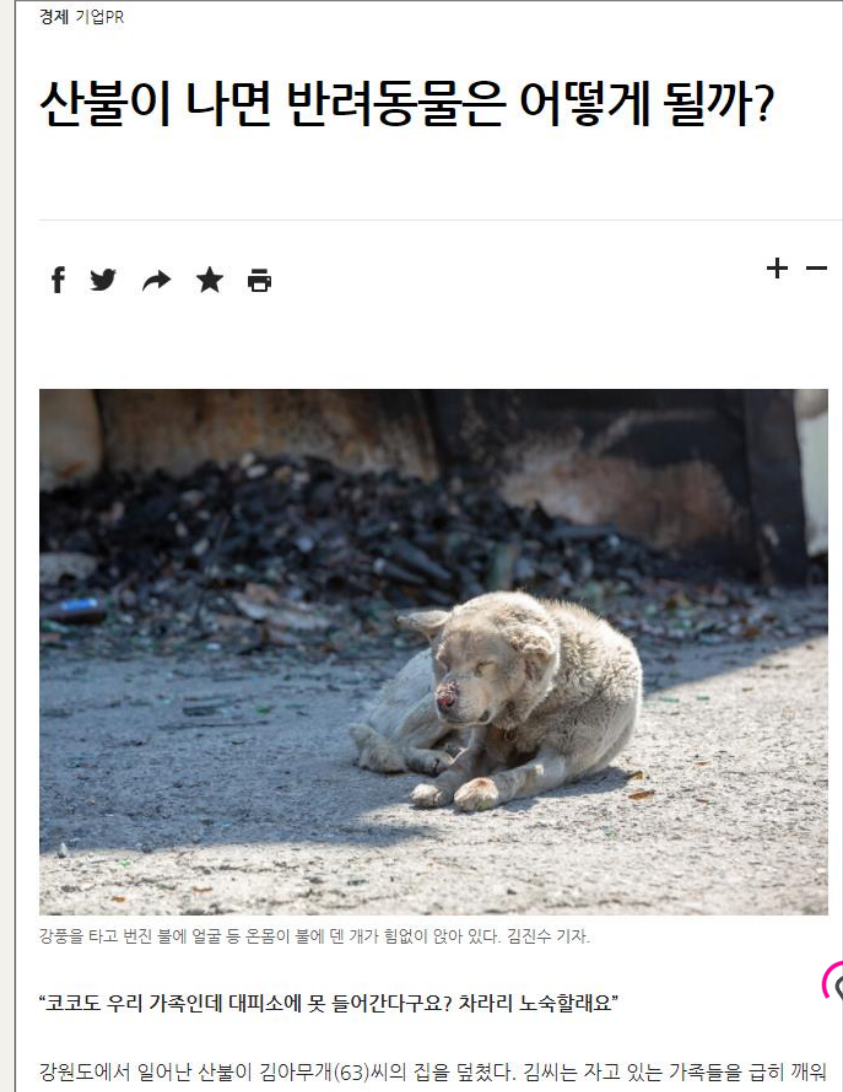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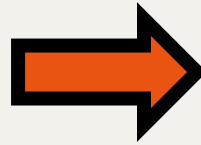


● 비용 : 1천만원 (vat 별도)



아티클 : 희망브리지 재난지원 캠페인

| 한겨레가 제작하고 인터넷 한겨레 메인 & 기사 페이지에 노출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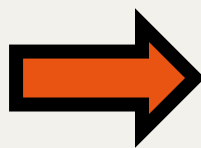


● 비용 : 1천만원 (vat 별도)



영상 : 서울시청 돌봄 SOS 센터

| 한겨레가 제작하고 한겨레 YouTube 채널에 노출됩니다 |



유튜브™를 위한 애드 블록에 의해 축소 [Share](#)

#돌봄SOS센터 #돌봄 #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어려운 중장년 어르신, 서울시 돌봄 SOS 센터 덕분에 '걱정 없어요'
조회수 9,868회 · 2020. 9. 8. 👍 110 🗨️ 0 🔗 공유 🔖 저장 ⋮

한겨레TV
구독자 38.2만명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가사, 간병이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스스로 챙기기 힘든 만 50세 이상 중장년 어르신 및 장애인(연령 무관) 가구 등에 일시 재가, 식사지원 등 돌봄 SOS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댓글 6개 ≡ 정렬 기준

● 비용 : 1천5백만원 (vat 별도)

프로세스

| 제작부터 라이브까지 최소 14일 소요됩니다. |

02
계약체결

04
콘텐츠
기획회의

06
수정 &
최종안 확정



01
문의 & 부킹

03
콘텐츠
자료조사

04
초안 작성

07
라이브 & 평가

- ① 한겨레 SNS 피딩 1회
- ② 결과 리포트 전달

※ 단 영상물 제작은 1개월 소요



뉴스레터

잘 차려놓은 '뉴스 식탁' Newsletter

|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뉴스 더미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골라 배달합니다 |

WEEKLY
#뉴스레그
이번주 기억해야 할 소식들



📺 광고 🌱 기후위기 🇰🇷 P4G서울정상회의

휘클리가 지난달부터 소개해온 국내 최초 기후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지난 월요일 막을 내렸다. 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국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 68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한 '파리협정'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첫해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해, 이틀간 논의된 내용과 회의 결과로 채택된 '서울선언문'의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 **P4G는 무엇?:**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의 약자야. 직역하면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를 위한 연대. 세계 정부기관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글로벌 협의체야.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첫번째 회의가 열린 뒤 3년 만에 서울에서 두번째 회의를 열었어. 다음 회의는 콜롬비아에서 열릴 예정.
- **정상들의 연설:** 5월30일 정상 연설세션에선 정상·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 50여명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어. 한국에선 김부겸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메시지를 전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 등 세션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어.

H:730 일간 시사 H:73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아침 7시30분 그날 가장 중요한 시사뉴스와 알찬 기사들을 신문 구독자나 홈페이지 방문자 같은 기존 독자 대상으로 브리핑합니다.

WEEKLY 주간 시사 휘클리

매주 목요일 정오,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MZ 세대들을 위해 혼자 따라잡기 어려웠던 복잡계 이슈를 현장기자들이 친절하게 문답으로 이슈를 정리합니다.

광고 문의

- ✓비용 : 개별 상담
- ✓문의 : bct@hani.co.kr



한겨레TV

시사 맛집 한겨레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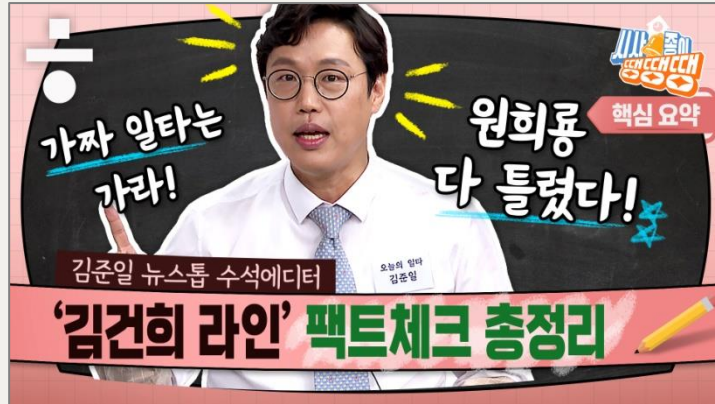
| YouTube 채널 구독자 62.4만 명, 누적조회수 3.5억 회, 총 시청시간 7.4천만 시간 |

한겨레의 영향력은 YouTube 에서도 이어집니다.

※ 2023년 8월 기준



[시사맛집 공덕포차]



[시사종이 땡땡땡]



[논설위원의 이슈 해설 - 논설]

PPL 문의

- ✓비용 : 개별 상담
- ✓문의 : bct@hani.co.kr



한겨레 초판



● 미리 보는 한겨레,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한겨레 디지털 초판 서비스를 이용하면 12시간 일찍 한겨레를 만날 수 있습니다. PC, 태블릿, 모바일에서도 사용가능하며 최대 3대의 기기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키워드 검색으로 원하는 뉴스를 한 눈에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기사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사 스크랩을 통해 편리하게 기사를 보관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비용 : 연 240만원 (부가세 별도)

구독 문의

- ✓문의처 : (주)다ahami 커뮤니케이션즈
- ✓연락처 : 070-4398-8346
- ✓이메일 : seoski@dahami.com
- ✓응대가능 시간 : 주중 오전 9시 ~ 오후 6시





문의 : 한겨레신문사 영상콘텐츠사업팀
bct@hani.co.kr